

사우디-이란 산유량 조정 “대립”

사우디, 고유가 막아 경기회복에 일조 ... 이란은 고유가 정책 고집

사우디는 유가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 회복에 가해지는 타격을 막기 위해 증산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상한에 접근했다”면서 “특히, 지금처럼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타격을 주도록 방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는 WTI(서부텍사스 경질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대를 오가고 있다.

또 사우디가 G20의 일원임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사우디도 새로 마련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의 입장이 고유가를 고집하는 이란과 충돌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유가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과다한) 고유가가 경기회복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요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보다는 경제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우디는 2009년 재정 운용을 위해 유가가 배럴당 평균 51달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반면, 이란은 훨씬 높은 91달러 수준으로 나타나 산유량에 조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30>